

##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신 기 숙†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12~15세의 아동으로 이들은 모두 강간 또는 유사성교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을 폭로한 후 2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이다.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피해아동 대부분이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시 심리적 반응으로 성행동이 더럽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공포, 불안, 두려움, 슬픔, 비참함,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였고, 그 당시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사건 후 정서적 영역에서, 슬픔, 무력감, 두려움, 불안을 느꼈으며, 행동적 영역에서 수면의 어려움, 악몽, 섭식문제,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사건에 대한 침투적 사고와 사건의 재경험은 일상적 기능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생활에서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2차적 피해와 또래들과의 갈등, 전학, 학업수행능력의 저하로 진행되어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 남성관과 성에 대한 혐오감, 증가된 이성교제, 파행적 결혼관으로 나타나고 있어 왜곡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자기개념, 대처방식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였으며, 사건폭로의 결과와 폭로 후 가족반응이 심리적 증상과 자기개념,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심리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분석됨으로서 심리적 개입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동 성폭력, 피해자, 피해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논문은 신기숙(2010)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신기숙,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33.

Tel: 010-9496-0087, E-mail : gisook21@hanmail.net

최근 심각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력 살해 및 유기사건, 2007년 안양 초등학교 유괴 및 성폭력 살해 사건, 2009년 경기도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사건 등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대검찰청(2009)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한 해 강간 발생 건수는 14,919건으로 그 중 15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958명(13%)이었으며, 이중 12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029명(7%)이었고, 6세 이하의 강간 피해자도 153명(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15세 이하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04년 1,816건에서 2006년 2,178건, 2008년 2,6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신문 2009년 2월 20일자 기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7.1%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여성가족부, 2008) 보고되지 않는 아동 성폭력 피해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 성폭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오현숙, 2003; 윤덕경, 정명희, 2004). 아동기는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동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유수진, 2003). 또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발달단계에 성취해야할 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초기 및 장기적

영향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어(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그 심각성이 클 수 있다.

아동 성폭력에서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동 성폭력 개념 논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다(김정규, 김중술, 2000; 유수진, 2003). 아동기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단계에 대한 학문적인 관점, 자율적 동의와 자기보호능력 여부, 법적인 보호, 복지서비스의 측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아동의 발달을 유아기(출생~2세), 아동기(2~12세), 아동후기(12~15세), 청소년기 네 단계로 대별하고,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정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진술하였다. Blos(1979)는 청소년기 적응이론을 통해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목표로 간주하고 자아발달 과정을 잠재기(latency), 청소년 전기(preadolescence),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 청소년 중기(middle adolescence),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 등 여섯 개의 하위단위로 구분하였다(송명자, 1998).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법(Child Protect Law)에서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서는 연령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주 법에서 정한 연령제한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연령기준은 각 주에 따라 14~18세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법에서는 아동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의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반법령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양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기 성폭력의 연령을 만13세 미만(윤덕경, 정명희, 2002), 만14세 미만(장광미, 1996), 만16세 미만

(김정규, 김중술, 2000), 만18세 미만(김민정, 1997; 박아경, 2008; 유수진, 2003)등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의 특성과 자율적 동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고려하여 아동후기 혹은 청소년 초기의 특성을 보이는 만 16세 이전으로 아동성폭력의 연령을 규정하였다. 이에 이 시기의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증상, 자기개념과 대처방식, 사건에 대한 폭로와 가족반응과 관련하여 기존의 이론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심리적 증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반응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피해로 인해 일부 아동은 최소한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반면 다른 아동들은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때로는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Beitchman, Zucker, Hood, daCosta, & Akman, 1992; Browne & Finkelhor, 1986;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성폭력 피해아동의 후유증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김정규, 김중술, 2000).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으로는 악몽, 불면증, 야뇨증, 분노, 공포, 불안감, 회피, 죄의식, 수치심, 우울증, 순결상실감, 이성혐오, 과도한 성행동, 불신, 공격성, 강박행동, 자살 시도, 퇴행, 무기력, 자포자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으로 보고되었다(Boney-McCoy & Finkelhor, 1996; Feiring, Taska, & Lewis, 2002; Friedrich, Urquiza, & Beike, 1986).

성폭력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도상금, 2006; Beitchman 등, 1992; Kathleen 등, 1993; Kendall-Tackett 등, 1993; Rowan, 2006).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공격성, 두려움, 불안감, 수면장애, 행동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퇴행행동, 과도한 자위행위, 연령에 부적절한 성적 지식, 성애화 행동(sexualized behavior)등이 두드러진다(Beitchman 등, 1992; Gold, Hughes, & Swingle, 1996; Tremblay, Hebert, & Piche, 1999). 청소년 피해자들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치심, 위축된 행동, 낮은 자존감, 적개심, 자살, 자기 파괴적 행동, 신체화 증상, 불법적 행동, 무단결석, 가출, 물질남용, 난잡한 성생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섭식문제,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 등이 특징적이다(Kendall-Tackett 등, 1993; Tylor, 2002).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의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고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권해수, 2002; Walker 등, 1988; Beitchman 등, 1992), 피해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과 부적응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Browne & Finkelhor, 1986). 반면, 선행연구들의 경우 아동 혹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증상은 폭넓게 연구되어 있지만 12~15세의 구체적 연령시기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어 이 시기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이 아동 혹은 청소년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자기개념과 대처방식

아동기 성폭력에서 동일한 피해 경험을 가

지고 있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며 대처하는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1994). 많은 연구들에서는 귀인양식을 포함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방식이 성폭력 피해의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으며 특정한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은 특정한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보았다(Barker-Collo, 2000; Spaccarelli, 1994). 귀인양식은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 대해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지각과 평가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귀인이론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 대한 귀인은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타인비난 등의 외적 귀인은 분노로 표현된다고 하였다(Bluman & Wortman, 1977).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기비난(Ney, Moore, McPhee, & Trought, 1986)과 분노(Cavaola & Schiff, 1988; Sgroi, 1984)의 두 가지 귀인양식을 모두 보이는데 이러한 분리된 반응은 사건의 책임감에 대한 서로 다른 귀인의 기능으로 해석된다.

Feiring 등(2002)은 147명의 8~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폭로 시점과 폭로 1년 후의 추적조사를 통해 귀인 양식이 폭로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건 폭로 후 비관적인 귀인양식이 성폭력의 심각성과 이후 우울증상과 자존감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관적 귀인이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낮은 자존감과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의 심각성 자체는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Burt와 Katz(1987)는 대처방식을 인지적, 표현적, 불안/신경증적, 회피적, 자기파괴적 대처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증상에 대처방식이 관련되어 있음을 제기하였다. 회피대처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증상을 증가시켰으며(Johnson & Kenkel, 1991; Leitenberg, Greenwald, & Cado, 1992), 부인과 정서적 억제도 심리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Leitenber 등, 1992).

이유미(2009)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장기 후유증과 관련되어 남녀대학생 비교연구에서 아동기 성폭력 피해 집단의 장기 후유증에 귀인양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처방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적 대처방식은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반면 자기 파괴적,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회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귀인양식, 대처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많은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에서 부정적 내적귀인이 피해아동의 적응과 심리적 증상을 악화시키고(권혜수, 2002; 김재엽, 최지현, 2009; Feiring 등, 2002), 대처방식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유미, 2009; Chaffin, Wherry & Dykman, 1997; Leitenber 등, 1992).

#### 사건에 대한 폭로와 가족반응

많은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 당시에는 대부분 폭로하지 않으며(Kelley, Brant, & Waterman, 1993; London, Bruck, Ceci, & Shuman, 2005),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연된 폭로를 한다(Goodman-Brown, Edelstein, Goodman, Jones, &

Gordon, 2003). 폭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는 인지적이고 발달적인 제한(Gries, Goh, & Cavanaugh, 1996), 죄책감과 수치심(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요인(Koverola & Foy, 1993), 가해자와의 관계(Arata, 1998), 피해의 특성(Faller, 1989; Sauzier, 1989), 보호자의 태도(Lawson & Chaffin, 1992), 아동에 대한 위협(Sauzier, 198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아동의 사건에 대한 폭로 후 부모의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적응과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Johnson & Kenkel, 1991; Runtz & Schallow, 1997; Wyatt & Mickey, 1988).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로 후 부모의 지지부족과 가족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증상 특히, 정서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이 큰 변인임을 보고하였다(한인영 등, 2008; Johnson & Kenkel, 1991).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경험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반적인 성폭력에 중심을 두었으며, 아동 성폭력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 피해자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성폭력 피해 경험을 연구할 경우 회고적인 기억에 의거해야 하므로 어린 나이에 경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억압, 부정, 부인할 경우도 있어 인지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도상금, 2006; 유수진, 2002).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내면적 경험에

대해 깊게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도 제한적일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피해경험 시기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혼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부호화하고 있어 평정(judges)결과의 편향과 결과의 반복검증에 대한 엄격성(rigor)이 결여될 수 있다. 반면(Hill, Thomson, & Williams, 1997),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는 반복연구가 가능하고 과학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특히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자와 함께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사례 간 결과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합의적 질적 연구는 자료를 코딩하여 각 영역에서 중심개념을 추출하기 보다는, 자료를 사례마다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영역 내에 나타난 각 범주에서 사례수를 도표화하고 일반성과 전형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례의 대표성 즉, 현상의 전형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아동이 피해로 인해 겪게 되는 제반 피해경험 및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영향은 발견 초기의 대처에 따라 발달과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 후유증에도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Alexander, 1992), 본 연구에서는 초기영향의 심층적 탐색을 위해 마지막 피해가 종결된 지 2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해경험

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폭력 피해아동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감소시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피해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사건 폭로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가?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에 있는 3개소의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에서 11명, 1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4명으로 모두 15명의 성폭력 피해아동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2~15세로 모두 중학생이었으며, 8명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이고 7명은 비친족에 의한 피해자이었다. 전체 15명 중 11명은 강간피해자이고, 4명은 유사성교 피해자이었으며, 이 중 3명은 집단강간 피해자이다. 또한 4명의 피해아동이 재피해를 입었으며, 1사례의 경우 3회의 재피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발은 세평적 사례선택 전략(reputational cases selection strategy)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드문 모집단 연구 시 연구자가 미리 연구의 특성과 충족시켜야 할 일련의 준거를 설정하여 구체화된 특성에 부합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소개 받았다. 선정 연령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부모 및 아동 모두에게 연구의 동의를 받았으며, 보호시설의 아동 중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관담당자의 연구동의를 받은 뒤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심리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가 예정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면접자

모든 사례에 대한 면접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10여년 이상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전문가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에서 5년 동안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의 전문성을 위해 상담심리전문가와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집단상담)로부터 3년 동안 개인 수퍼비전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로서 준비를 위해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심리학과 내의 질적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였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의 경험이 면접과정에서 피해아동과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할 수 있었으며,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는 피해아동의 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 (최초피해)	학력	피해유형	가해자(가해자 수)	피해횟수 (지속기간)	비고
1	15(14)	중3	유사성교 *	(수양)의붓 부	9개월	
2	12(8)	중1	강간	의붓 부	5년	
3	14(13)	중2자퇴	집단강간	학교선배(3명)	단회	재피해
			강간	남자친구	3개월	
4	12(10)	중1	유사성교	친부	1년	
5	13(8)	중2자퇴	강간	(입양)의붓 부	6년	
6	13(13)	중1	유사성교	선배	단회	
7	15(12)	중2자퇴	유사성교	친부, 숙부	2년	
8	13(13)	중2	강간	인터넷 채팅	1개월	
9	15(14)	중3	강간	인터넷 채팅	2회	재피해
				학교 선배(3명)	단회	
				학교 선배(4명)	단회	
				학교 선배(5명)	단회	
10	13(11)	중1	집단강간	낮선 성인(2명)	단회	재피해
				학교 선배(3명)	단회	
11	14(14)	중2	강간	남자친구(선배)	단회	
12	13(12)	중1	강간	동네 할아버지	8개월	재피해
			집단강간	낮선 청소년(2명)	단회	
13	14(11)	중2	유사성교	친부	3년	
14	15(11)	중3	강간	숙부	5년	
15	14(13)	중2	강간	친부	8개월	재피해
			강간	인터넷채팅	단회	

\* 강간은 성기삽입을 전제로 하며 성기 이외의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할 경우 강제추행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성기삽입과 다른 신체 일부 혹은 도구 삽입에 의한 고통과 수치심이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성교행위로 간주하고 ‘유사성교’라 칭한다.

**분석팀**

한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상담심리전문가이면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심리전문가로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

**평정자**

본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는 연구자를 제외

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수료자 1명, 임상심리전문가로 임상심리 박사학위를 수료한 1명으로 평정팀을 구성하였다.

### 감사

본 연구에 2명의 감사가 참여했다. 1인은 상담심리전문가이면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논문을 수행한 바 있으며, 다른 1인은 발달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성'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 자료수집 절차

####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피해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해 선행연구의 문헌고찰과 본 연구자의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로 강간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1차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연구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문항 수정을 통해 1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1차 수정안을 전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8명의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이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인 6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2명)를 통해 보완 사항을 조언 받아 2차 수정을 하였다. 2차 수정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로 2명의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문항수정을 하고 임상 교수 2인의 피드백을 통해 면접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면접

질문지의 내용은 성폭력 사건 드러내기, 성폭력 사건 당시 반응, 성폭력 사건 후 피해아동의 반응, 자기개념, 대처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폭력 사건 후 성에 대한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면접질문지를 토대로 면담과정에서는 피해아동의 이야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아동이 말하는 흐름에 따라 개방적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참여자 면접

모든 참여자 면접은 본 연구자가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여러 차례의 면접은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 면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 면접이 1차에 그쳤으나 참여자 4명의 경우 추가적 내용을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2차면담의 경우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후 각 기관의 치료자들에게 면담의 내용을 전달해서 치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게도 고지하였다. 면담을 마친 모든 사례에는 번호가 부여되었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사례번호로 처리되었다. 면접에 참가한 아동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동반한 부모에게는 교통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 자료분석

##### 자료준비

면접을 진행하고 총 15사례에 대해 녹음된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팀 외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축어록으로 만들었고, 모든 축어록에 대해 이후 본 연구자가 재확인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였다.

### 평정자 교육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들에 대해 본 연구자가 2회에 걸쳐 8~9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시 본 논문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1개의 사례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영역을 부호화 하도록 하고, 작업해온 사례에 대한 평정작업을 실시하였다. 평정연습은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해온 사례를 통해 영역을 나누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합의해 나갔으며, 3명 모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했다. 3명의 평정자 모두 박사과정 동기로 상호 ‘위계’와 ‘힘(power)’의 역동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모두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어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 영역 만들기

축어록으로 작성된 자료를 면접 질문지에 근거해서 관련된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3명의 평정자들은 독립적으로 각 축어록을 읽고 면접질문지를 토대로 모든 자료를 한 영역으로 할당하였다. 먼저 15개 사례에서 가장 풍부하게 기술한 2개의 사례를 연구자가 선정하여 이 중 1사례를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축어록의 관련된 부분 옆에 영역계목을 쓰도록 했으며 같은 문장에서 내용도 따라 세부적으로 영역을 구분하게 하였다. 세부적인 영역의 구분은 ‘의미단위’로 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진술의 의미를 토대로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류하였다.

개별적으로 작업한 1사례에 대해 3명의 평정자가 모여 합의에 이를 때 까지 논의해 나

갔다. 처음 1사례에서 합의된 영역에 대해 영역목록을 정리한 후 다시 새로운 1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전체가 모여서 합의하는 방법으로 영역을 나누었다. 2개의 사례를 통해 영역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후 나머지 자료 중 9사례에 대해서 3명의(A,B,C) 평정자들이 사례를 AB, BC, CA의 형태로 각각 2명씩 교차해서 분류되어 한 팀이 3사례씩 평정하였으며, 모든 평정자들은 개별적으로 평정작업을 한 후 각 팀과 모여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평정자들이 총 11개의 사례를 평정한 후 본 연구자가 11사례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영역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평정자들과 합의과정을 통해 재정리하였다. 전체 15사례 중 나머지 4사례는 작성된 영역목록을 통해 평정자들이 평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지 않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개념 구성

모든 사례를 영역으로 분류한 후 원 자료를 간결한 용어로 요약하였다. 요약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추론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그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관점을 충실하게 남겨두는 사실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3명의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읽고 중심개념을 구성한 후 함께 모여 합의에 이를 때 까지 논의하였다.

### 영역과 중심개념 감사

모든 사례의 영역과 중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사의 감수를 받았다. 2명의 감사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읽고 각각 감수를 했으며, 1명의 감사가 8사례(홀수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다른 한명의 감사가 7사례(짝수 번호가 부여

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감사는 원 자료에 정확한 영역이 존재하는지, 원 자료의 모든 내용이 영역으로 구분되었는지, 중심개념으로 요약된 내용이 원 자료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 교차분석

각 개별사례를 모두 영역과 중심개념으로 구성한 후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15사례의 영역과 중심개념을 검토하여 범주를 도출한 후 평정팀이 모여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다.

Hill 등(2005)은 각 범주가 얼마나 빈번히 전체 표본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표본의 전형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례(모든 혹은 한 사례만 제외된)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general) 범주, 사례의 절반이상에서 나타나면 전형적인(typical) 범주, 사례의 절반미만에서 나타나면 변동적인(variant)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15사례 이상의 표본에서는 2~3사례를 드문(rare) 범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14~15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8~13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4~7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인, 3사례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은 드문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비가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각 8사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7~8사례를 일반적인 범주로, 5~6사례를 전형적인 범주로, 4사례 이하를 변동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

### 교차분석 감사

교차분석 후 감사는 개별사례의 중심개념이 각 각의 범주 하에 적합한지, 범주명이 모든

중심개념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범주로 묶인 내용이 너무 달라서 더 세분화되어야 하거나 내용이 서로 유사해서 몇 개의 범주가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 결 과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인과적 원인으로 분류한 결과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과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은 피해아동들이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전반적인 증상 영역들을 포괄하여 5개의 영역(사건당시 심리적 반응, 사건 후 정서적, 행동적 영향, 사건에 대한 기억, 학교생활, 성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개의 영역(자기개념, 대처방식, 사건에 대한 폭로, 비가해 가족과의 관계)이 포함되었다.

###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에 대해 <표 2>에 제시하였다.

#### 영역 1. 사건당시 심리적 반응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사건당시에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전형적).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순간

표 2.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

영역	범주	빈도(사례)
<b>가. 사건당시 심리적 반응</b>		
사건당시 생각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전형적(9)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	전형적(8)
	아무 생각 없이 순간 멍해짐, 내가 아니라고 생각	변동적(5)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후회함, 죽고 싶다는 생각	변동적(4)
	임신될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변동적(4)
사건당시 감정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	전형적(10)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임	전형적(8)
	슬픔, 고통스러움, 비참함	전형적(8)
	아픔, 수치스러움, 더러운 느낌	변동적(7)
사건당시 행동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음	전형적(15)
	소리도 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무시당함	변동적(7)
<b>나. 사건 후 정서적, 행동적 영향</b>		
정서반응	슬픔, 의욕저하	전형적(8)
	두려움, 불안	전형적(8)
	짜증나고 화남	변동적(6)
	사람에 대한 배신감, 혐오감을 느낌	변동적(4)
	자신이 원망스러움	변동적(4)
행동문제	수면의 어려움	전형적(11)
	악몽	전형적(11)
	섭식문제	전형적(8)
	행동통제의 어려움	전형적(10)
<b>다. 사건에 대한 기억</b>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	사건관련 자극을 접할 때	전형적(11)
	가만히 있을 때	전형적(8)
	수업 중 일 때(집중을 요할 때)	변동적(7)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떠오름	전형적(9)
	어쩌다 간간이 떠오름	변동적(3)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음	변동적(3)
사건의 재경험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함	전형적(8)
<b>라. 학교생활</b>		
소문	소문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전형적(11)
도래관계	사실을 알면 친구들이 나를 욕할 것 같아 경계함, 거리 둠	전형적(8)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는 것 같음(피해의식)	전형적(8)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있음(철회)	변동적(5)
	피해 관련 소문으로 친구들과 갈등을 빚음	변동적(4)
전학	전학을 하게 됨	전형적(10)
학업	성적이 하위수준으로 떨어짐	전형적(15)
	학업수행 능력이 저하됨	전형적(9)
<b>마. 성에 대한 관점</b>		
남성에 대한 관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다가오면 무서움	전형적(8)
	남성의 모든 것이 싫음	변동적(4)
성행동과 태도	성행동은 더럽고 무서움	전형적(8)
이성교제	피해 후 여러 명의 남자와 이성교제 함	전형적(11)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쉬운 여자로 볼 것 같음	변동적(5)
	교제하면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 무서움	변동적(4)
	남자친구와 성적 접촉 시 사건이 생각나 눈물이 남	변동적(4)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도 성적 접촉은 하고 싶지 않음	변동적(4)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할 수 없고, 결혼해도 관계유지가 힘들 것 같음	전형적(11)

주. N=15. 일반적: 모든 혹은 한 사례 제외(14~15사례), 전형적: 50% 이상(8~13사례), 변동적: 50% 미만(4~7사례), 드문: 3사례 이하

멍해지고 내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였으며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후회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변동적). 사건당시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짜증과 화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슬픔, 고통스러움, 비참함을 경험하였다(전형적). 사건당시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아동들이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

### 사건당시 생각

... 더럽고, 그거 하는 게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임신이 제일 걱정되고... (사례 9)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무조건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게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힘들죠. 그래도 그 생각을 하는 순간만은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사례 1)

### 사건당시 감정

...좀 아팠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런 거, 내 뜻대로 안되니까... 두려웠죠,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스럽고... 때리고 싶고... (사례 9)

너무 비참했어요... 더럽고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고... 무섭긴 무서운데 두려운 감정이 들면서 꿈인 것 같았어요. (사례 1)

### 사건당시 행동

... 싫다고 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례 1)

내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싫은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이 날 때리거나 할지도 모르니까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난 못 하겠다... (사례 7)

### 영역 2. 사건 후 정서적, 행동적 영향

#### 정서적 영향

피해아동들의 사건 후 정서로 슬픔과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 무기력함, 두려움, 불안이 가장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을 잊고 싶는데 잊혀지지 않아 짜증나며 일상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고 하였다(변동적). 특히 가족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것에 배신감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사건당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사건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적).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막 죽고 싶고... 알

고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인걸 알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한 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타격적이고... 그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당한 거, 그 힘든 점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말하고는 싶은데 말로 표현이 다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생애 있어서 최고로 가슴 아프고 힘든, 내 자신도 버릴만큼 힘든 거... 계속 울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겠다... (사례 3)

그냥 눈물 나면 울고, 울다보면 또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창밖 내다보고.. 기분도 안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계속 짜증이죠,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사례 5)

**행동적 영향**

피해아동들의 사건 후 행동으로는 수면의 어려움, 악몽, 섭식문제,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대부분 나타났다(전형적). 사건 후 잠드는 것이 힘들고 깊은 잠을 못자며 미세한 자극에도 예민해져 바로 일어나게 되어 불규칙한 수면과 불면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였다. 섭식문제에서는 폭식증상과(변동적), 거식증상(드문), 폭식과 거식증상을 동시에 보이는(변동적)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행동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성격이 급해졌으며 말도 거칠어지는 등의 공격성 증가가 크게 드러났다(전형적).

**수면의 어려움**

개네들이 무서웠어요. 사나운 애들이었

기 때문에 해코지 할까봐. 찾아와서 그럴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늘 밤마다 잠자기도 그렇고 아침이 밝아도 무섭고... 꿈을 꿀까봐, 똑같은..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잠자는 게 싫었어요... (사례 3)

**섭식문제**

폭식증상: 배가 배부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살찌잖아요... 배가 안고파도 먹어요. 잘 먹어요... (사례 15)

거식증상: 그 땐 아예 먹기도 싫었고요. 배고파도 안 먹고 거의 굶다시피 그런 것 같은데... (사례 8)

폭식과 거식 증상: 그냥, 막 배고프다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아예 안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그래서 되게 불규칙해졌어요... 안 먹을 때는 하루 종일 안 먹고 먹을 때는 두 그릇 세 그릇씩도 먹고... 먹고 또 먹고 킁킁대고... (사례 1)

**행동통제의 어려움**

옛날에는 애들이 건들어도, 시끄럽게 해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막 옆에서 조금이라도 떠들면 괜히 신경 날카로워져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화내기도 하고요. 옆에서 조금만 건들어도 짜증내고... (사례 8)

영역 3. 사건에 대한 기억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

피해아동들이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사건관련 자극을 접할 때(전형적), 가만히 있을 때(전형적), 수업 중 일 때(변동적)이었다.

**사건관련 자극을 접할 때**

닭은 사람 볼 때, 그 남자랑 닭은 사람 볼 때 떠오를 때도 있고... 사이트 잘 못 들어가면 성인사이트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키스하잖아요, 그 때... (사례 9)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잠시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 먼 기억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거든요... 그냥 기분 안 좋고 아무생각 없이 있으면 획 지나가고 획 지나가고 그래요. (사례 5)

**수업 중 일 때(집중을 요할 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으면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칠판인데 가해자랑 했던 상황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 이렇게... (사례 7)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는 피해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떠오른다고 했으나(전형적) 일부 아동들은 어쩌다 간간이 떠오르거나(변동적),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다고(변형적) 표현하였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떠오름**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게 머릿속에 남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지나가요. 마음속으론 멈추고 싶은데 머릿속에선 계속 영상이 되요. 마음하고 머릿속하고 반대예요. (사례 5)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음**

그렇지도(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나고 재밌게 놀아요, 잘 살아요. (사례 10)

**사건의 재경험**

피해아동 대부분이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였다(전형적). 그 상황으로는 남자와 신체접촉이 있을 때, 사건관련 장소나 가해자 관련 자극을 볼 때, 또는 가만히 있어도 가해자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한번 씩은... 그래서 소름이 이렇게 짹 돌아요... 근데 소름이 돌으면, 또 열도 오르고, 식은땀도 흐르고... 그 일이 일어날 거 같고 가해자가 네 몸을 만지는 느낌이 그대로... (사례 5)

누워 자려고 하면 누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없는데요, 진짜 이상해진

건 없는데요, 그 후에 막 잘 때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저는 혼자 누워 있는데도, 누가 막 내 몸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모텔 옆에 지나가도 그런 생각도 들고 불길하기도 하고, 괜히 누가 막 내 몸에 손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례 8)

#### 영역 4. 학교생활

##### 소문

피해아동들의 학교생활은 소문과 관련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들에게 소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고통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는데(전형적) 그 내용의 하나는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아동이 사건을 유발했다는 부풀려진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이다.

#####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움

남들한테 그 이야기가 알려질까 봐 두렵고 무섭고, 욕할까봐 다 나를 싫어할까봐, 따돌림 받을까봐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었고... (사례 1)

갈보라고 소문날까봐... 맨 날 남자랑 몸 섞고 막 그러는 애들... 남자관계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문 퍼지면 난 학교 아예 안 나올 건데요. 그냥 사람들 눈초리 그런 것도 싫고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사례 11)

##### 소문이 학교에 퍼짐

처음예요. 제가 친한 친구 한명에게 말을 먼저 해서요. 그게 어찌다가 걔가 말해가지구요 그게 퍼진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말하고 그래서 소문이 됐어요...자기들이 오해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리고요. 그게 어찌다가 막 소문이 불려져서 퍼지고... (사례 6)

##### 또래관계

피해아동들의 또래관계에서도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와 이미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면 친구들이 나에게 욕할 것 같아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고(전형적),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나타났으며(전형적), 이로 인해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있어 철회되는 양상을 보였다(변동적).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 피해아동들 비난하는 소문으로 인해 친구들과 갈등을 빚었다(변동적).

#####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 경우

친구들을 경계함, 거리를 둬: 친해지면 아무래도 알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죠. 멀어질 거 같아요. 사이가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이 옆에 많이 있는게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앉아있고 관심보이면 오히려 더 답답해요. 불안하고. 뭔가 알게 될 것 같아서. (사례1)

피해의식: 뒤에서 막 욱하는 것 같고,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내 욱 했냐고... 누가 욱했어, 이러면 당연히 안했어 이러겠지만... (사례 7)

철희: 그냥, 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뺄줄해요. 왕따는 아닌데 다들 자기 친구들이랑 있는데 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제가 왕따같이 보일 것 같아서... (사례 2)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

피해아동을 비난함: 소문이에요 제가 다른 학교 오빠들이랑 섹스를 하고 다닌데요, 그러니까 당한 게 아니라 좋아서 그랬다고... 친구들이 저를 꺼려한다 그러나... 어이없었어요... (사례 6)

친구들과 갈등, 피해의식: 학교 교문을 들어설 때부터 애들을 보잖아요... 내가 왜 쳐다보냐고 그러면 안 쳐다봤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군수군 거리고, 뒤에 앉아서 숙덕숙덕 거리고, 일부러 내 주위 맴돌면서 손가락질 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왕따 시키고 따돌리기도 하고... (사례8)

**전학과 중퇴**

피해아동들은 소문이 퍼지거나 퍼지지 않은 경우 모두 대부분 전학을 하게 되었고(전형적), 견디기 힘들어 중퇴(드문)도 하였다.

그 일이 뉴스에 떴었대요... 막 다른 학교에 소문 퍼지게 될까 무섭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싫었고... 떨어진 곳으로 전학

을 했어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막 알 것 같고... 애들이 내 흉을 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가는 게 싫고... 학교는 감옥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사례 3)

**학업**

피해아동들은 학업 면에서 대부분 성적이 하위수준으로 떨어지고 학업수행능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학업수행능력 저하의 경우, 수업 중 피해상황이 떠올라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피해의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석과 조퇴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집중도 안되고, 공부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맨 날 그 가해자 생각이 나고... 그 일을 당하고 나서요, 너무 집중이 안 되고요...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요. (사례 12)

**영역 5. 성에 대한 관점**

**남성에 대한 관점**

피해아동들의 남성에 대한 관점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다가오면 무섭고(전형적), 남성의 모든 것이 싫으며(변동적), 남성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드문)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남자는 무조건, 다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한테 남자는 성관계만 요구하는 그런 나쁜 남자 그렇게 또 생각했어... 남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제가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사례 3)

오빠들은 거의 후배하고 사귀어서 따 먹으려고 사귀는 거예요. 오빠들이 고백하면 또 따먹으려고 고백하는 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남자들이 막 여자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욕망 그런 거, 욕심 같은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짝 다... (사례 11)

**성행동과 태도**

성행동과 태도에서 피해아동들은 성적 행동은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였다(전형적). 또한 사건 후 성적 관심이 높아져 정보도 검색해보고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나쁜 행동으로 여겨져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그니까 더럽단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걸 괜히 보고 있으면 저만 헛구역질 나오고 저만 힘들잖아요... 키스까지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하면 뭔가 성적인 게 아니어도 좀 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례 1)

가해자가 거기를 만진 후부터 저도 간간히 자다가 그곳을 만지게 되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게 안 멈춰요. 그게 속상해요...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그러다가도 가해자 생각나면 좀 더러워지고... 기분이 나빠요.... (사례 13)

**이성교제**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이 남성과의 성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 후 여러 명의 남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그러나 남자친구들이 피

해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쉬운 여자로 볼 것 같으며(변동적), 교제 후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 무섭다고(변동적) 하였다.

1년에 한 7명, 거의 짧게 사귀다가요... 좋은 점은 안 외롭고... 키스하다가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들 다 생각나고 무섭고 울기도 했어요... 남자들은 스킨십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손잡으면 울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니까 그냥 좀 암울해요, 슬프기도 하고... 주위에서 너 남자 없으면 못살겠다. 막 그런 소리 듣고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냥 외로워요. (사례 7)

아, 쉬운 여자구나. 그런거 쉽게 하는 여자구나 그렇게 보일까봐. 그런게 걱정됐어요. (사례 3)

남자친구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랑해도 그 사람도 나 먹고 버리는 거 아냐 이런 생각... (사례10)

**결혼에 대한 생각**

피해아동들은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해도 관계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하였다(전형적). 그 내용으로는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고, 결혼을 한다 해도 남편이 알까봐 두렵고, 알게 되면 싫어할 것 같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혼)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례 8)

결혼하면 그 남자들이 막 제 남편한테 말할 것 같아요.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내가 성폭력 했다고 그 애랑, 그냥 이혼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결혼 안하려고요... (사례 10)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영역(자기개념, 대처방식, 사건에 대한 폭로, 비가해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표 3>에 제시하였다.

**영역 6. 자기개념**

**사건에 대한 귀인**

성폭력 피해 후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사건의 원인과 관련되어지는 귀인에 대한 탐색에서 1사례를 제외한 모든 피해아동들이 ‘내 잘못이 큼’ 이라고 부정적 내적 귀인을 하였다(일반적). 또한 피해아동들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탓도 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뜻을 무시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의 탓도 하였다(전형적).

**내 잘못이 큼(부정적 내적귀인)**

제가 그 때 뿌리치지 못한 거, 무서워서 말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때, 내가 다 잘못된 거 같고, 계속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다 내 탓이구나... 엄마 몰래 밤에 나가거나 노는 것을 좋아해서 벌 받는 건가 그런... (사례 3)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처음에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한 게, 그만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 같아요... 그 때 좀 더 빨리 끊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하라고 말 안 했던 거. 그게 제일 잘못된 거 같아요. 내가 나쁜 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사례 15)

**가해자가 욕구충족을 위해 내 뜻을 무시함(외적귀인)**

자신의 성 그거 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례 14)

그 성관계를 했잖아요. 아무리 딸이 하지 말라고 말을 안했어도 계속했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사례 15)

**신체에 대한 지각**

피해아동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자신의 신체가 손상되고 변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적). 이러한 지각의 내용으로는 성과 관련된 질병(유방암, 자궁암, 에이즈, 성병, 불임)에 대한 염려가 많았으며, 성기주변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것 같고 신체성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다.

그니까 제가 이 사건 당한 이후로 질이 커졌을수도 있잖아요... 질 쪽이 살이 부풀어 올랐어요. 늘어났다고 해야 하나, 그니까 한 쪽이 많이 튀어 나왔어요... (사례 3)

여기요 막 음모 나고요. 처음엔 계속 안났는데 아빠가 성추행 하고 부터 막 났어요. 성장이 빨라진 것 같아요. 아빠 때문

표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범주	빈도(사례)
<b>6. 자기개념</b>		
사건에 대한 귀인	<b>내 잘못이 큼(부정적 내적귀인)</b>	일반적(14)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음	전형적(9)
	그 장소에 가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해서 일어남	변동적(7)
	내가 만만해 보이고, 품행이 좋지 않아 피해를 입음	변동적(6)
	뿌리치며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해 자책이 됨	변동적(6)
신체에 대한 지각	엄마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탓인 것 같음	변동적(4)
	<b>가해자가 욕구충족을 위해 내 뜻을 무시함(외적귀인)</b>	전형적(12)
자기 이미지	신체가 손상되고 변형된 것 같음	변동적(7)
	내 몸이 더럽혀지고, 가치 없어짐	전형적(8)
	움츠러들어 있고 소심해짐, 말이 없어짐(자존감이 저하됨)	전형적(8)
<b>7. 대처방식</b>		
대처방식	사건에 대해 회피함	일반적(15)
	다른 일에 집중해서 바쁘게 지냄	일반적(14)
	부인, 억제	전형적(13)
	사건관련 특정자극을 회피함	전형적(11)
	집을 벗어나고 싶어 가출함	전형적(8)
	약물사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전형적(11)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함(해리)	전형적(8)
<b>8. 사건에 대한 폭로</b>		
폭로 전 발설	폭로 전 발설 경험	전형적(8)
폭로시기	지연된 폭로	일반적(15)
폭로지연 이유	수치스러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소문날까 두려움	전형적(10)
	가족의 반응이 걱정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두려움	전형적(10)
	혼날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움	전형적(9)
폭로계기	결과가 잘못되면 가해자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것 같음	변동적(6)
	타의에 의한 폭로	전형적(12)
폭로상대의 반응	자발적 폭로	드문(3)
	부정적 반응을 보임	전형적(8)
폭로 후 느낌	내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줌	변동적(4)
	불안, 두려움	전형적(11)
	답답한 것이 풀려 그 순간에는 후련하고 편안함	전형적(9)
	폭로 대상자가 고통스러워해서 말한 것이 후회됨	변동적(7)
<b>9-1. 비가해 가족들과의 관계(친족: 8사례)</b>		
사건에 대한 엄마의 반응	가해자를 더 감싸고 위해주는 것 같음	전형적(5)
	폭로전 알고 있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 덮어둠	변동적(3)
	충격으로 혼란스러워 함, 울며 힘들어 하는 모습 보임	변동적(3)
	내 잘못도 있다고 말함	변동적(2)
엄마의 반응에 대한 느낌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밉고, 원망스러움	전형적(5)
	울며 슬퍼해서 마음이 불편함, 이혼하기를 바람	변동적(2)
가족반응	고소취하, 합의를 중용하고 탄원서를 쓰게 함	전형적(5)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함(할머니)	변동적(2)
<b>9-2. 비가해 가족들과의 관계(비친족: 8사례)</b>		
가족반응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함	전형적(4)
	내 잘못을 말하며 아쉬워 함/	전형적(4)
	사건에 대해 가족들이 말 꺼내기를 회피함	전형적(4)

주. N=15. 일반적: 모든 혹은 한 사례 제외(14~15사례), 전형적: 50% 이상(8~13사례), 변동적: 50% 미만(4~7사례), 드문: 3사례 이하

에... 별로 안좋아요. (사례 4)

**자기 이미지**

사건 후 피해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서 내 몸이 더럽혀지고 가치 없어졌다고 느꼈으며(전형적), 사건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움츠러들어 있고 소심해져 있어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에요. 상실감... 제 존재 자체가 작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1)

이 일을 당했으니깐 나는 이제 쓸모없고 가치 없구나. 이제 결혼도 못하겠고... (사례 3)

**영역 7. 대처방식(피해 후)**

**사건에 대해 회피함**

모든 피해아동들이 사건에 대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 회피의 방법으로는 다른 일에 집중해서 바쁘게 지냄(일반적), 부인과 억제(전형적), 사건관련 특정자극 회피(전형적), 가출(전형적)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에 집중해서 바쁘게 지냄: 일부러 다른 걸해요. 책을 일부러 읽으려고 한 다든가 음악을 크게 듣는 다든가, 일부러 웃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니까 다른 거 하려고 일부러 하죠. (사례 1)

부인, 억제: 그 때 있었던 일을 다시는 되돌려 받고 싶지 않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례 5)

사건관련 특정자극을 회피함: 그냥요 남자들 보면 피하게 됐어요.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냥 주위에 있는 아저씨들 보면 무서워서 맨 날 피했어요. 무서웠어요. 뛰어가거나 다른 길로 해서 가고 그랬어요. (사례 4)

집을 벗어나고 싶어 가출함: 짜증나서 집에 있기도 싫고, 집도 나가고 그랬어요. 무작정 나갔어요. 짜증나서...(사례 11)

**약물사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사건으로 인한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이 약물사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등의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다(전형적).

술 먹고 취해서 한 행동이 전혀 기억 안나요. 문자가 이런 거 보고 알고... 멈추기 힘들거나 그럴 때 술도 많이 먹었죠. 그런 일 생각날 때 술을 먹고요... (사례 7)

이걸 파고 딱 보면 뿌듯하다고 느껴요. 뿌듯하고 좀 느낌이 좋고 그래요. 그냥 '칼빵'하고 나면 뭔가가 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 근데 이걸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안하면 계속하게 되니까... (사례5)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함(해리)**

피해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마비되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

였다(전형적).

멍 때리고 있다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 느낌. 뭔가가 공간이 변했다는 생각은 드는 데 아무 것도 안 바뀌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 저라는 사람이 인식하기 싫으니까 아빠도 다른 사람에 대입하고 저도 다른 사람에 대입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책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례 1)

### 영역 8. 사건에 대한 폭로

#### 폭로 전 발설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폭로 전 발설경험(전형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설대상은 모두 친한 친구나 알고 지내는 언니 등 또래들로 부모나 어른들에 비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친한 애들이니까, 그냥 엄마보다 더 말하기 쉬운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게 됐죠... (사례 15)

#### 폭로시기

폭로시기의 경우 모든 피해아동들의 폭로가 지연 되었는데 피해 후 일주일 이내는 2사례로 매우 드물었고, 첫 피해 후 1개월~1년 이내 7사례, 1년~3년 3사례, 5년 이상이 3사례였다. 대부분 1년 이내에 폭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례도 6사례나 되며 이들은 모두 친족피해자인 경우였다.

#### 폭로지연 이유

피해아동이 사건을 폭로하지 못하고 지연시

켰던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수치스러움, 비난과 소문에 대한 두려움(전형적), 가족의 반응에 대한 걱정과 가족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전형적),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전형적), 결과가 잘못되면 가해자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것 같음(변동적)으로 나타났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얼굴도 못 들겠고, 보기도 좀 그렇고.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하면 괜히 한 사람 입에서 또 건너고 건너서, 누군가의 귀로 또 들어가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그냥 다들 그 말을 들으면, 저를 욕하고, 저랑 안 놀고 애들이 저를 비판하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당하는 저도 살지를 못했을 것 같고... (사례 5)

제가 말은 하고 싶은데 답답했어요. 무서워서, 엄마한테 많이 혼날까봐. 다 내가 잘못된 거일 까봐 걱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사례 3)

#### 폭로계기

피해아동들의 사건에 대한 폭로는 타의에 의한 폭로가 대부분이었고(전형적) 자발적 폭로는 3사례 정도였다(드문). 타의에 의한 폭로의 경우 발설상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폭로되거나, 피해를 의심한 부모의 추궁에 털어놓게 되거나, 다른 일과 결부되어 원치 않게 드러나는 경우 등이었다.

타의에 의한 폭로: 이는 언니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언니네 엄마한테 말했죠. 언니의 엄마가 이곳에 전화해서 오게 되었어요. (사례 7)

자발적 폭로: 그냥 계속 아빠한테 당하고요 아빠한테 매 맞고 살아야 되나... 할머니다, 제 말 맨 날 믿어주니까요.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사례 4)

**폭로상대의 반응**

피해아동들이 사건을 폭로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엄마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엄청 우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엄마가 저러다가 미치는 건 아닐지 걱정되고 난생처음 엄마가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저도 엄마한테 보여줘서 서로 실망감도 크고 그랬어요... (사례 3)

**폭로 후 느낌**

사건 폭로 후 피해아동들은 그 순간에는 답답한 것이 풀려 후련하고 편안함을 느꼈지만(전형적) 대부분 폭로 후 불안과 두려움(전형적), 후회(변동적)를 경험하였다.

마음은 말한 순간에는 가벼웠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묵직해지고 그랬어요.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뭔가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냥 좀 괜히 말했나 싶고, 그냥 말 안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 좀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 무섭기도 하고... (사례5)

**영역 9. 비가해 가족과의 관계**

‘비가해 가족과의 관계’ 영역의 경우 가해자 관련요인과 비가해 가족들의 반응이 친족 피해사례와 비친족 피해사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재피해를 입은 한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과 비친족인 관계로 본 영역에서는 친족피해 8사례, 비친족피해 8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친족 피해사례의 경우 사건에 대한 엄마의 반응, 엄마의 반응에 대한 느낌, 가족반응 영역이, 비친족 피해사례의 경우 가족반응 영역이 나타났다.

**【친족 피해사례】**

**사건에 대한 엄마의 반응**

사건 폭로 후 엄마의 반응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은 엄마가 자신보다 가해자를 더 감싸고 위해주는 것으로 지각하였다(전형적).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와 관련하여 3사례에서는 어머니들이 피해아동들의 폭로전에 약간씩은 알고 있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 덮어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적). 또한 폭로 후 어머니들은 믿을 수 없다며 피해아동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혼란스러워 했으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변동적). 2 사례의 경우 어머니들은 피해아동의 평상시 복장의 문제나 일찍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아빠가 거기에(교도소) 들어가니까 돈 보태준거, 그런 거 하고 아빠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고... 그 하지 말라고 안 했던 거. 엄마한테 빨리 얘기 안했던 거. (사례 15)

**엄마의 반응에 대한 느낌**

피해아동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는 엄마의 반응에 대해 속상하고, 밋고, 원망스럽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전형적).

엄마라고 믿었는데... 가해자를 많이 감싸세요. 배신감이 제일 컸어요. (사례1)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해야 할 행동 맞나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좋은 딸이 아니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잖아요. 한 며칠 동안 엄마가 걸렸는데, 지금은 엄마도, 엄마가 더 미워요, 이제.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거 같고... (사례5)

**가족반응**

엄마를 포함한 친족들은 폭로와 고소 후 피해아동들에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중용했으며 탄원서를 쓰게 하였다(전형적).

(친할머니)거짓말 한다고... 날 그렇게 날 못 믿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외할머니)합의해주라고 내 걱정은 하나도 안하구요. 너네 엄마가 피해보니까 빨리 해 주라고 왜 안 해주고 있냐고, 너네 신고만 안 했으면 너네 엄마 피해 안 간다고 막... 다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도 합의 하라고, 합의해주고 풀어주라고... (사례 7)

**【비친족 피해사례】**

**가족반응**

피해아동들의 사건 폭로 후 가족들은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분노를 표현하였다(전형적). 반면, 사건 후 바로 이야기 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반항하지 않았던 피해아동의 행동을 질책하며 아쉬워하기도 하였다(전형적). 피해아동들은 폭로 후 사건에 대해 가족들 간에 말 꺼내기를 회피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꼈다(전형적).

아빠는 그놈을 찾아가서 죽여야겠다고. 엄마는 막 그 새끼는 개새끼라고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시구요. 그래서 막, 엄청 우시면서 자기가 다 죽이겠다고... (사례 6)

제가 눈치를 보게 변해서 좀 어색해요. 처음에는 눈치 안 뵈는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사례 12)

이상에서 살펴본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사건 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사건당시 생각, 감정, 행동 등의 심리적 반응은 이후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문제로 드러났으며, 그 충격은 외상을 유발시켜 사건에 대한 침투적사고와 반복되는 재경험으로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영향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 남성관은 왜곡되고 일탈된 성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부정적 자기개념과 대처방식은 피해아동의 증상을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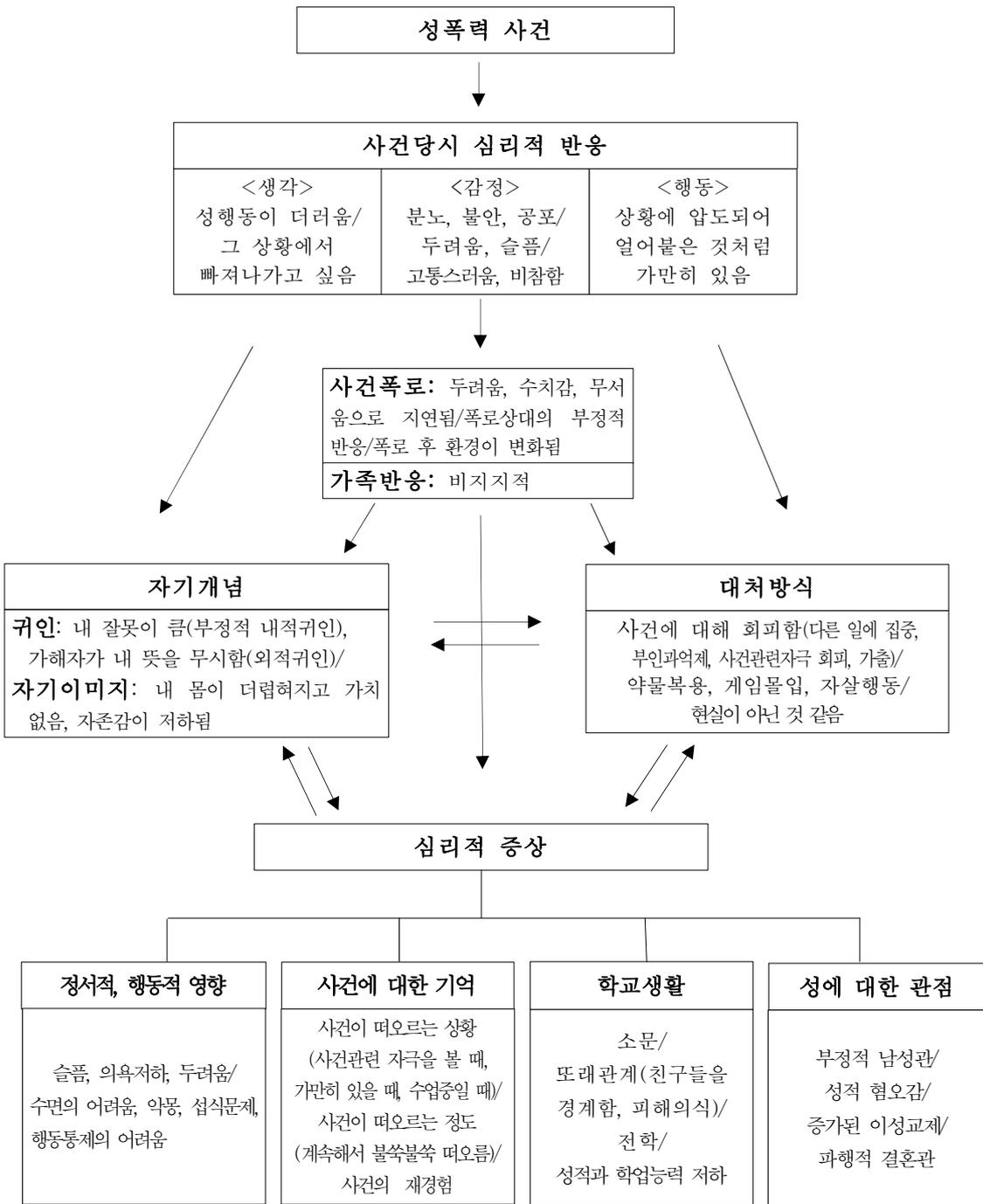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모델

화시켰으며, 부정적 자기개념과 대처방식, 심리적 증상의 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증상을 더 강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사건폭로 과정에서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비지지적 가족반응은 피해아동들의 부정적 자기개념, 대처방식, 심리적 증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피해경험에 대한 모델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는 12~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경험의 특성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논의에서는 이 시기의 피해아동들의 피해경험이 다른 연령의 피해경험과 구별되는 특징 및 한국 상황에서의 피해경험 특성을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성폭력 피해아동 경험의 발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의 학령기(7~12), 청소년기(13~18) 및 전체연령 성폭력 피해특성을 본 연구 참여자의 피해경험 특성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성폭력 피해유형과 피해 후 경과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12~15세 피해 아동만을 한정하여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별 명확한 특성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서로 상이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도 한계는 있지만 발달단계별 피해아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본다.

첫째, Kendall-Tackett 등(1993)의 성학대 피해아동의 연령별 증상과 관련된 45개 문헌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학령기, 청소년기 성학대 피해증상과 본 연구에서의 피해증상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피해아동들은 학령기 아동의 피해증상과 청소년기 피해증상이 부분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ndall-Tackett 등(1993)의 문헌연구에서 학령기는 불안, 악몽, 우울, 철회, 공격성, 부적절한 성행동, 학교/학업문제, 과잉행동, 퇴행행동이 크게 나타나며 청소년기는 우울, 철회, 자살충동, 낮은 자존감, 신체적 호소, 비행, 난잡한 성관계, 학교/학업문제, 불법행동, 가출, 물질남용, 자기손상적 행동이 두드러진다. 우울과 철회, 학교/학업문제가 두 연령집단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령기 증상의 불안, 악몽, 공격성은 전형적으로 나타났으나 과잉행동, 퇴행행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기 증상에서의 자살충동, 낮은 자존감, 신체적 호소, 가출, 물질남용, 자기 손상적 행동은 크게 나타났지만 난잡한 성관계, 불법행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Kendall-Tackett 등(1993)의 연구에서는 성애화행동의 경우 학령기는 부적절한 성행동(예: 자위행위, 성적 몰입)으로, 청소년기는 난잡한 성관계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의 피해아동의 경우 자위행위와 성관계의 양상도 나타났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증가된 이성교제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문제도 학령기는 과잉행동과 퇴행행동을 보이지만 청소년기는 불법행동과 가출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피해아동은 가출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과잉행동, 퇴행행동, 불법행동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Kendall-Tackett 등(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령기와 청소년기 증상이 부분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이 시기 피해아동만의 독특한 증상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전체연령(10~50세)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2008)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영향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정신적 피해와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영역의 피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였지만 증상의 정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적 피해에서 불면증 40%, 우울증 40%, 순결상실감 25%, 불안감 35%, 분노감 및 적개심 55%,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1%, 자살기도/자해 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고한 정신적 피해의 내용은 본 연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나 증상의 정도에서 본 연구의 피해아동은 자살기도/자해를 제외한 모든 내용영역에서 전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에서의 피해에서도 남자에 대한 혐오감 35%, 학업(직장) 중단 9.7%,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중단 혹은 손상이 25%, 대인 기피증(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문제)이 34%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피해증상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아동들의 남자에 대한 혐오감, 학업중단, 또래관계의 문제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상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피해아동은 강간과 유사성교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가족부(2008)의 연구는 강간에서부터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증상의 심각성은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초 피

해 연령이 어릴수록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Wyatt 등,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의 단일한 증상보다는 학령기 증상의 일부와 청소년기 증상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이 시기만의 증상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증상들은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들의 증상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증상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피해 직후부터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위해서는 발달단계에서의 피해영향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성에 대한 관점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심리적 증상에 대한 개입과 함께 대처기술 훈련을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건 후 자신의 고통을 약물 사용이나 극단적인 가출과 자해행동 등으로 표출하고 있어 초기 심리적 개입과정에서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아동들의 경험 특성 중 한국적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피해경험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피해아동들의 소문에 대한 두려움과 소문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사건 폭로 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법적 지원체계의 문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아동들의 심리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피해아동들은 사건에 대한 소문을 크게 두려워한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의 폭로가 지연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건이 소문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학교생활에서도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을 경계하게 되고 피해의식으로까지 발전되어 또래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성폭력 유발의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있다(피해자 유발론)’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왜곡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해 부정적 내적귀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자 유발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형법 제 298조」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가해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을 설명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을 묻게 되며 아동·청소년에게조차도 저항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러한 ‘저항’ 요인이 사회문화적으로 강하게 형성되면서 ‘피해자의 옷차림, 품행’ 등이 사건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동시적인 판단의 잣대로 사용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원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는 성폭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피해자의 책임이 성폭력 사건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은 ‘품행이 좋지 않아 피해를 입음’, ‘그 장소에 가서 사건이

발생함’, ‘엄마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탓인 것 같음’ 등의 부정적 내적귀인을 하였다. 이러한 내적귀인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아동들에게 습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품행과 옷차림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와 타인들의 비난 또한 피해아동들의 사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경우 피해아동들은 또래들에게 ‘원해서 섹스를 했다’, ‘성관계가 문란하다’는 등의 비난과 놀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피해 후 증상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적응문제가 나타나고(Calam, Horne, Glasgow, & Cox, 1998),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반응(Somer & Swarcberg, 2001)을 보이기는 했지만 소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의 소문이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또래들과의 갈등에 대처하는 다양한 개입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건 폭로 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증상을 악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폭로가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폭로 후에도 가해자가 찾아가 해코지 할 것 같다는 무서움으로 고통 받았다. 피해아동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로 후 상황은 피해아동들이 자신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신변에 대

한 위협감은 심리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안전한 환경은 그 동안의 아동의 생활에 극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비침해적인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윤혜미, 2006). 영국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 원칙을 세우고 있다. 보호명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고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성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감독명령에서는 주기적으로 아동과 가족이 치료에 참가하도록 명령한다.(강은영, 2006). 최근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보호처분을 선고토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는 최초로 마련되었지만 피해아동의 장·단기적 보호를 위한 가해 및 비가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명령, 지속적인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입조치는 여전히 부재하다.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을 위해서는 그 가족에 대한 개입과 함께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보호체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법적 지원체계의 문제로 인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은 고소 후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고소취하와 합의를 종용받았다. 친족 피해사례의 경우 어머니나 가족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도록 하였다. 심지어 경찰 및 사법

기관에서 조차도 가해자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하도록 권고하였다. 합의와 탄원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무분별한 접촉과 행동들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본 연구에서 친족 피해아동들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탄원서 요구에 대해 강한 원망과 분노를 표현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고 탄원서를 써서 제출한 피해아동이 대부분이었다. 비친족 피해아동과 가족의 경우 가해자들의 고소취하 및 합의요구로 끊임없이 고통 받았으며,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받기도 하였다. 성폭력 사건은 합의가 필요한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고소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된다면 고소의지가 약화될 수 있어 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피해아동들을 정신적 혼란감에 빠뜨리는 합의나 탄원서가 아동을 보호해야 될 성인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법적 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심리적 개입과정에서 사법적 문제로 인한 피해아동의 내적갈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해경험에 대해 심층적 탐색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는 대부분 아동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피해아동의 생생한 경험탐색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피해아동들의 다양한 경

험은 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개입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피해아동의 연령을 12~15세로 제한하여 이 시기 피해아동의 피해 경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의 경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있으나 12~15세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여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후기 혹은 청소년 전기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피해경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폭력 피해아동의 초기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초기영향은 성폭력 사건이 종결된 지 2년 이내의 영향으로 피해로 인한 후유증상이 장기영향과 구별된다(Browne & Finkelhor, 1986). 아동기 성폭력 피해는 발견 초기의 대처에 따라 발달과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 후유증에도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초기영향의 연구는 중요하다(Alexander, 1992). 국내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초기영향의 탐색은 피해아동의 장기적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초기개입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12~15세로 한정하고 이 시기의 피해아동의 심리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일부는 학령기에 피해가 시작되어 수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일부는 12세 이후에 피해가 시작되어 지속되거나 단회에 종결되었다. 이로 인해 최초 피해의 연령과 피해의 지속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들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이 이전의 발달단계에서부터 기인되어 현

재의 시기에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최초 피해시기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탐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최초피해 연령과 지속기간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접과 분석과정에서의 주관성과 편견의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개방적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접이 진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자료해석 과정에서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와 평정팀이 모여 기대와 편견에 대해 토론하였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3명의 평정자와 2명의 감사가 참여하였지만 여전히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피해 경험 특성에서 심리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초점을 두었다. 피해아동들의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향후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반면, 피해아동들이 성폭력이라는 외상사건의 생존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이 심리적 증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내재된 역량과 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영 (2006). 주요국의 아동 성학대 개입 및 보호체계: 효과적인 아동 성학대 개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료집. 굿네이버스 2006 아동기획 포럼, 27-65.
- 권해수 (2002).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 최지현 (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0(2), 231-247.
-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69.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일반범죄분석 I, <http://www.spo.go.kr>, 검찰자료실.
- 도상금 (2006).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증상을 매개하는 무력감, 귀인 및 정서대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08). 2007년 전국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신문 (2009, 2, 20).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특집기사. 6면.
- 오현숙 (2003).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의 치료집단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진 (2003).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경, 정명희 (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윤혜미 (2006). 효과적인 아동 성학대 개입 및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효과적인 아동 성학대 개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포럼 자료집. 굿네이버스 2006 아동기획 포럼, 69-94.
- 이유미 (2009). 아동기 성학대의 장기 후유증과 관련 변인들의 성차: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근친 성학대 피해아동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199-240.
- Alexander, P. C. (1992).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85-195.
- Arata, C. M. (1998). To tell or not to tell: Current functioning of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who disclosed their 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3, 63 - 71.
- Beitchman, J. H., Zucker, K., Hood, H. E., daCosta, G. A., & Akman, C. F. (1992). A review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6, 101-118.
- Bluman, R. J., & Wortman, C. B. (1977). Attributions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51-363.
- Boney-McCoy, S., & Finkelhor, D. (1996). Is youth victimization related to trauma symptoms and depression after controlling for prior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406-1416.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9(1), 66-77.
- Burt, M. R., & Katz, B. M. (1987).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the Sciences*, 528, 345-358.
- Calam, R., Horne, L., Glasgow, D., & Cox, A. (1998). Psychological disturbance and child sexual abuse: A follow-up study. *Child Abuse & Neglect*, 22, 901 - 913.
- Cavaiola, A. A., & Schiff, M. (1988). Behavioral sequelae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2, 181-188.
- Chaffin, M., Wherry, J. N., & Dykman, R. (1997). School age children's coping with sexuality abuse: abuse stress and symptoms associated with four coping strategies. *Child Abuse & Neglect*, 21(2), 227-240.
- Faller, K. C. (1989). The rol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as a predictor of characteristics of intrafamilial sexual abus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6, 217 - 229.
- Feiring, C., Taska, L., & Lewis, M. (2002). Adjustment following sexual abuse discovery: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9-92.
- Finkelhor, D., Hotaling, G., Lewis, I., & Smith, C. (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 Men and Women: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 Neglect*, 14, 19 - 28.
- Friedrich, W. N., & Luecke, W. J. (1988). Young school-age sexually aggressive childr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 155-164.
- Friedrich, W. N., Urquiza, A. J., & Beilke, R. (1986). Behavior problems in sexually abused young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1, 47-57.
- Gold, S. N., Hughes, D. M., & Swingle, J. M. (1996).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sexual abuse among female survivors in therapy. *Child Abuse & Neglect*, 20(4), 323-335.
- Goodman-Brown, T. B., Edelstein, R. S., Goodman, G. S., Jones, D. P., & Gordon, D. S. (2003). Why children tell: a model of children's disclosure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5), 525-540.
- Gries, L. T., Goh, D. S., & Cavanaugh, J. (1996). Factors associated with disclosure during child sexual abuse assessment.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5, 1 - 19.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N. E., Hess, S. A., & Ladam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up 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Johnson, B. K., & Kenkel, M. B. (1991).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female adolescent incest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15, 293-305.
- Kelley, S. J., Brant, R., & Waterman, J. (1993). Sexual abuse of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Child Abuse & Neglect*, 17, 71-89.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Koverola, C., & Foy, D.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atology in sexually abused children: Implications for legal proceeding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 119 - 127.
- Lawson, L., & Chaffin, M. (1992). False negatives in sexual abuse disclosure interview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532 - 542.
- Leitenberg, H., Greenwald, E., & Cado, S. (1992). A retrospective study of long-term methods of coping with having been sexually abused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16, 399-407.
- London, K., Bruck, M., Ceci, S. J., & Shuman, D. W. (2005).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about the ways that children tell?.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194-226.
- Ney, P. G., Moore, C., McPhee, J., & Trought, P. (1986). Child abuse: A study of child's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10, 511-518.
- Runtz, M. G., & Schallow, J. R. (1997).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adult adjustment following childhoo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1(2), 211-226.
- Sauzier, M. (1989).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For better or wors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455 - 469.
- Sgroi, S. M. (1984).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omer, E., & Szwarcberg, S. (2001). Variable in delayed disclosure of childhoo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3), 332-340.
- Spaccarelli, S. (199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child sexual abus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2), 340-362.
- Tylor, K. A. (2002). Social and emotional outcomes of childhood sexual abuse: A review of recent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567-589.
- Williams, L. M. (1994). Recall of trauma: A prospective study of women's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167-1176.
- Wyatt, G. E. (1991). Child sexual abuse and its effects on sexual functioning.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2, 249-266.
- Wyatt, G. E., & Mickey, M. R. (1988). The support by parents and others as it mediates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An exploratory study. In G, E, Wyatt & G, J, Powell (Eds.), *Lasting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pp, 211-226).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1. 9. 29.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8.  
최종게재결정 : 2011. 12. 20.

## Sexually Abused Children's Victimized Experience

**Kisook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ictimized experienc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The study group included the sexually abused children with age between 12 and 15 years old who were experienced either rape or genital contact, and disclosed within 2 years of accidents. I have interviewed them individually and analyzed the data by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experienced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The psychological reaction of accidents at that time included that she thought the sexual behaviour was dirty, thought of escaping that situation, experienced the anger and phobia against the offender, anxiety, fear, sorrow, misery, and painful emotion, and were frozen by the overwhelmed situation. After the accident, she experienced the sorrow, helplessness, fear, and anxiety in terms of emotional area, and the insomnia, nightmare, eating problems, th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behavior in terms of behavioral area. The intrusive thought about the accident and its re-experience evoked th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daily routines. In school, the pain and fear about the rumor were developed through various aspects, which caused the secondary damage, the conflicts with colleagues, change of school, and the drop of learning capability, resulting in the maladaptation in school life. The standpoint of sex displayed the distorted aspects including the wrong view about male, a hatred about sex, an enlarged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and crippled view of marriage. Moreover, the self concept and coping sty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ffected the psychological symptoms, and three factors were interacted mutually, which were further affected by the results of accident disclosure and the after-reaction of families. In this study, as the psychological symptom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its affecting factors was analyzed through her experience, my result have its significance as providing the basis for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victim, victimized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